

GS칼텍스, 여수서 한마음콘서트

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지원 ... 여수단지 근로자에 상생 부탁

GS칼텍스가 SBS와 함께 <한마음 콘서트>를 개최한다.

GS칼텍스(대표 허동수)는 4월22일 오후 7시 여수시 오동도 특설무대에서 상생의 노사화합을 다지고, <2012 여수 세계박람회> 성공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<근로자의 날 특집 한마음 콘서트>를 SBS 주최로 여수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.

GS칼텍스는 LG칼텍스정유에서 새롭게 탄생한 기념으로, 생산기반 시설이 위치한 여수지역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하는 축제의 의미도 곁들여졌다고 밝혔다.

1시간 반 동안 펼쳐질 음악회는 전문MC 임백천과 SBS 윤지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패티김, 송대관, CAN, 최성수, 박상민, 사월과 오월, 박남정, 리아, 왁스, 유니, K-POP 등 신세대·중견 인기가수 11명이 출연해 성대한 축제의 장을 펼친다.

식전 행사로 김충석 여수시장과 명영식 GS칼텍스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, 인기가수들이 히트곡을 열창하는 공연 사이사이에 <상생과 화합>, <한국산업의 심장>, <여수 근로자에게 희망찬 내일>이라는 3개 주제의 영상물이 상영되며 막간 영상물은 GS칼텍스를 필두로 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의 규모 및 그 의미 설명과 함께 생생한 현장화면이 담겨질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5/04/21>